

협회,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어촌어항 특별관 운영-

한국어항협회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9월 1일부터 4일까지 COEX 태평양홀에서 열린 국내 최대 여행박람회인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어촌어항특별관을 전시, 참가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주2일 휴무제 실시와 함께 체험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 진흥 종합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어촌어항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어촌어항 특별관을 설치 운영했다.

30여평의 독립부스로 설치된 어촌어항특별관에는 현재 한국어항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동영상을 상영과 미래의 어촌어항을 한 눈에 보여주는 어촌어항 관광 모델(I·II·III모델) 조감도를 소개하였고, 아름다운 어촌 100선



소개, 어촌체험마을 및 동·서·남해에서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함께 한국어항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어촌어항어장사진공모전 입상작 및 어항항공촬영 사진 20여점을 전시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었다.

내나라여행박람회는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관광여행박람회로 전국

16개광역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200여개 여행정보 서비스 관련 기업, 기관, 단체 등이 참가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태풍 '나비' 어항 피해 260여억원

9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나비'로 인한 어항 피해가 98개항, 2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 14호 태풍 '나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항은 총 98개로 국가어항 6개, 지방어항 25개, 소규모어항 64개 체험마을을 3개로 집계되었다.

피해액은 국가어항 8억 4천여만원, 지

방어항 95억여원, 체험마을을 1억2천여만원, 소규모어항 155억2천여만원으로 소규모어항의 피해액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건, 울산 9건, 경남 4건, 강원도 11건, 제주도 5건, 경북 59건으로 경북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경남도 인공어초 주변 폐기물 수거 실시

- 사천·통영지역 8개소 6,225톤 수거

한국어항협회는 올 상반기 남해군 해역에서 큰 성과를 올렸던 인공어초 주변 폐기물 수거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용역사업으로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난 9월 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천·통영지역에 인공어초가 투하된 8개소 4.3ha에서 해양폐기물 6,225톤을 인양하게 된다.

본 사업은 잠수사 및 잠수장비, 크레인 등을 투입하여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전문적인 사업으로 인공어초의 기능을 유지,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어업환경개선 및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울진군 침체어망 인양사업 실시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울진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울진군 연안주변 침체어망 인양 사업 실시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는 2006년 1월 23일까지 120일간 폐 개자망 및 폐어구, 폐어망, 폐와이어 등 어업인들이 조업 중 버린 어업폐기물 236톤을 수거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주요 사업 구역인 울진읍, 죽변면, 북면 앞 0.5마일에서 12마일 해상 3만2천 860ha에 정화선 3척, 바지선, 예인선, 어선 90여척을 투입하여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종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 초청받아

한국어항협회 배평암 회장은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로부터 10월 12일 개최되는 제57회 전국어항어장대회에 초청받아 참가하여 일본 수산인들과 현안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일본 요코하마 고베시 월드기념홀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일본 전국어항어장대회는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가 개최하는 대회로 농림수산부장관, 중의원, 참의원, 농림수산위원장, 어항어장어촌정비촉진의원 연방회장, 대일본수산회장 등 수산관계자 5,000여명이 참석하는 일본 최대 수산 관련 행사다.